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민주공원



2025. 여름호

177



9 772765 298008
ISSN 2765-298X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민주공원

2025년 여름호 통권 177호

발행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발행인 이행봉 | 편집인 이동일
발행일 2025년 7월 7일 | 간별 계간 | 등록일 2005년 4월 12일 | 등록번호 부산중,바00013
표지 제호 신영복 | 편집장 이보람 편집위원 김보영 배가영 배정애 유한별 이지희
디자인 중간 051-466-8994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우 48901)
전화 051-790-7400 전송 051-790-7410 누리집 www.demopark.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SNS로 빠르게 소식을 만나보세요!

- 민주공원 페이스북
facebook.com/Minjugongwon
-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democracypark
-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
youtube.com/민주공원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페이스북
facebook.com/busanminju



펴내면서

총칼로 헌정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시도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사회는 깊게 분열되었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가장 민주적인 제도와 시스템으로 맞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온 성숙한 민주시민정신이 그 힘의 바탕이었습니다.

지난겨울과 봄은 정치와 사법 체계의 한계를 겪었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절이었습니다. 이제는 일터와 지역, 교육 등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숨결을 다시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이번 여름호 소식지는 ‘다시 만난 민주주의’를 주제로 부산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광장의 목소리부터, 헌법 전문에 수록된 4·19혁명의 정신을 되새긴 제65주년 4·19혁명 추모위령제, ‘다시 만난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열린 5·18민주화운동 부산 기념문화제와 6월민주항쟁 부산 시민한마당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만 2·28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함께 조명한 기획전시 ‘국가 폭력에 맞선 시민의 힘’, 하반기 개관을 앞둔 민주주의기록관을 미리 둘러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기록관에 보관될 소장 사료도 미리 소개합니다. ‘더 나은’ 코너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제33회 민주시민상 수상자인 가수 우창수 씨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번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지치지 않고, 짙은 녹음 속에서 민주주의의 뿌리가 더욱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 표지 : ‘과거의 민주주의와 현재의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기억의 공간’ 민주주의기록관이 올해 하반기 개관을 준비 중이다. 민주주의기록관이 민주주의 화수분이 되어 민주항쟁기념관의 뜻기림햇불(민주의햇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 사진_최우창

목 차

04

마루누리

광장은 멈추지 않는다!

10

민주공원

제65주년 4·19혁명 희생자 추모 위령제 및 기념식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부산 기념문화제

제38주년 6월민주항쟁 기념 부산 시민한마당

16

국가 폭력에 맞선 시민의 힘_김선아

18

민주주의기록관 둘러보기_이동문

22

기억에서 기록으로_박지원

24

더 나은

초·중등 교육의 현장에 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가_위민제

28

빵과 서커스_이보람

34

회원과 함께

함께 걷고 배우는 민주공원 스토리투어_유한별

36

민주사랑방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서 온 편지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우리의 시간

소식지를 읽으면 정답을 알 수 있는 십자말풀이

41

민주알림방

당신이 민주주의입니다

빛의 광장에서 모인 우리의 기록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 기록을 모읍니다!





광장은 멈추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 시도 이전부터, 광장은 늘 열려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광장을 지켜왔다.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부산 서면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은 연일 자리를 지켰고,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말했다. 정권만 바뀌어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다시금 광장의 목소리는 정치의 주변부로 밀려났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는 거리에서 쏟아졌던 분노와 질문, 희망과 제안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정치의 언어로 다시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 결성되었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인물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 연대체다. 각 지역에서도 광장의 요구를 정치로 되살리기 위한 연대가 결성되었다.

부산에서는 4월 30일, “광장대선 연합정치 부산시민연대” 결성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며 지역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광장에서 시작된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대선과 그 이후 정치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5월 8일,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있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인사 50여명은 기자회견에서 ‘부산에서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다짐했다.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늘 광장으로 나와서 길을 열었던 건 시민들이다. ‘빛의 혁명’ 완수를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과 청년, 이주민, 장애인 등 늘 광장을 지키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번 마루누리는 거리에서, 특히 서면 광장에서 터져 나왔던 시민들의 물음과 요구를 다시 들여다본다. 우리는 그 말들 속에서, 광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려 한다.

“

이수연 (중학생)

어른들이 시위하고, 서로 의지하며 부당한 계엄에 맞서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어떡하지?’라는 근본적인 걱정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한 감정이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으로도 충분해’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청소년도 무언갈 해야만 합니다. 시위도 나가고, 투표도 해야 하며 의견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제한되어 있으니, 자연스레 관심은 멀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라고 자연스레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강요만 합니다. 청소년에게 정치는 자극적인 도파민 덩어리, 가십거리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관심 가지는 것. 지금 상황으로선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부한 답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 큰 위기감을 주진 못합니다. 우리가 더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시위? 회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할 때 이 일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 줄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건 결국 법과 제도입니다.

“

김민지 (첫 집회 참여자)

저는 지난겨울 ‘계엄’ 선포에 충격을 받고 난생처음으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멀리서 보던 집회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모인 것처럼 보였지만, 직접 들어가 보니 정말 많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국민’이기 이전에 자신을 정의하는 삶의 자리가 있었고, 소수자와 비주류로 여겨졌던 사람들도 각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를 경험했고, 몰랐던 세계의 이들과 동료 시민으로서 연대할 수 있





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탄핵 선고 이후 그다음 단계를 맞이했지만, 차별과 혐오가 허용되지 않고 개인의 존엄과 평등, 권리가 실현되는, 다양성이 포용 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주체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

김혜숙 (노동자)

2024. 12. 3.(화) 22:31 지인으로부터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TV에서 긴급 속보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현실에 뭘지 모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선배 열사들이 부르짖으며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이제는 적폐 청산과 내란 세력 종식을 위해 추운 겨울 또 광장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거짓으로 역사를 왜곡해도 수궁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노동자, 여성, 사회 약자들이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광장으로 나가 시민들과 한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저는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보편적인 복지를 받으며, 법 집행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세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

황경혜 (30대 여성)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 혐오와 불평등을 인식하고 알아가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차별과 여성 혐오를 더 찾아볼수록 세상이 여성에게 얼마나 야박하고 위험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직 저의 안위와 남에게 공격을 받거나 죽음당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계엄이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집문을 한 번 더 걸어 잠그고 커튼을 치고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동시에 왜 국가까지 나의 안위를 위협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다음날 바로 뛰쳐나간 광장에는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해서인지 20·30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모르는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거친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던 순간들이 따뜻하고 안락한 공간에 있는 것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상에서 여성 혐오와 불평등을 겪으며 저도 어느새 남성들을 혐오하게 됐는데 탄핵광장에서 주를 이루는 여성들과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남성들을 보면서 이 속에서는 내가 여자라고 위협받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다른 성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평소에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동등한 관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성별로 차별하고 나뉘질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쳐서 부당함에는 요구하고 약자와 힘이 필요한 곳에는 우리의 힘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페미니즘의 뜻은 성별로 인한 차별 없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것이지 여성이 남성보다 뭔가를 더 가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누군가에 의해 죽어가는 여자들의 기사가 하루에도 여러 개씩 뜨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일

어나지 않게 예방할 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여성이 목숨을 위협받을 걱정 없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

서원희 (40대 여성)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이자, 비상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도 매주 토요일 서면에서 윤석열 퇴진 촛불을 들어왔던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45년 전 5월의 광주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한국 근현대사가 해결하지 못한 분단은 우리 사회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자주와 평화,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고, 역사는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5·18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결사적으로 군인들의 총과 탱크를 막아섰고, 실시간 영상으로 국회 상황을 전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의 도발까지 유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광장의 시민들은 무엇보다 그 점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미국의 내정 간섭 시도에 대해 단호히 규탄하며,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에 이르는 그 모든 순간, 어떤 위협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촛불시민과 대조적으로 여전히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믿는 일부 내란 지지세력은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 일장기를 휘감고 나와 중국타도를 외쳤습니다.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부패한 레드컴플렉스에 오염된 그들에 대해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언젠가 과거가 되었을 때 오늘의 기억이 미래의 어느 날을, 그날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받는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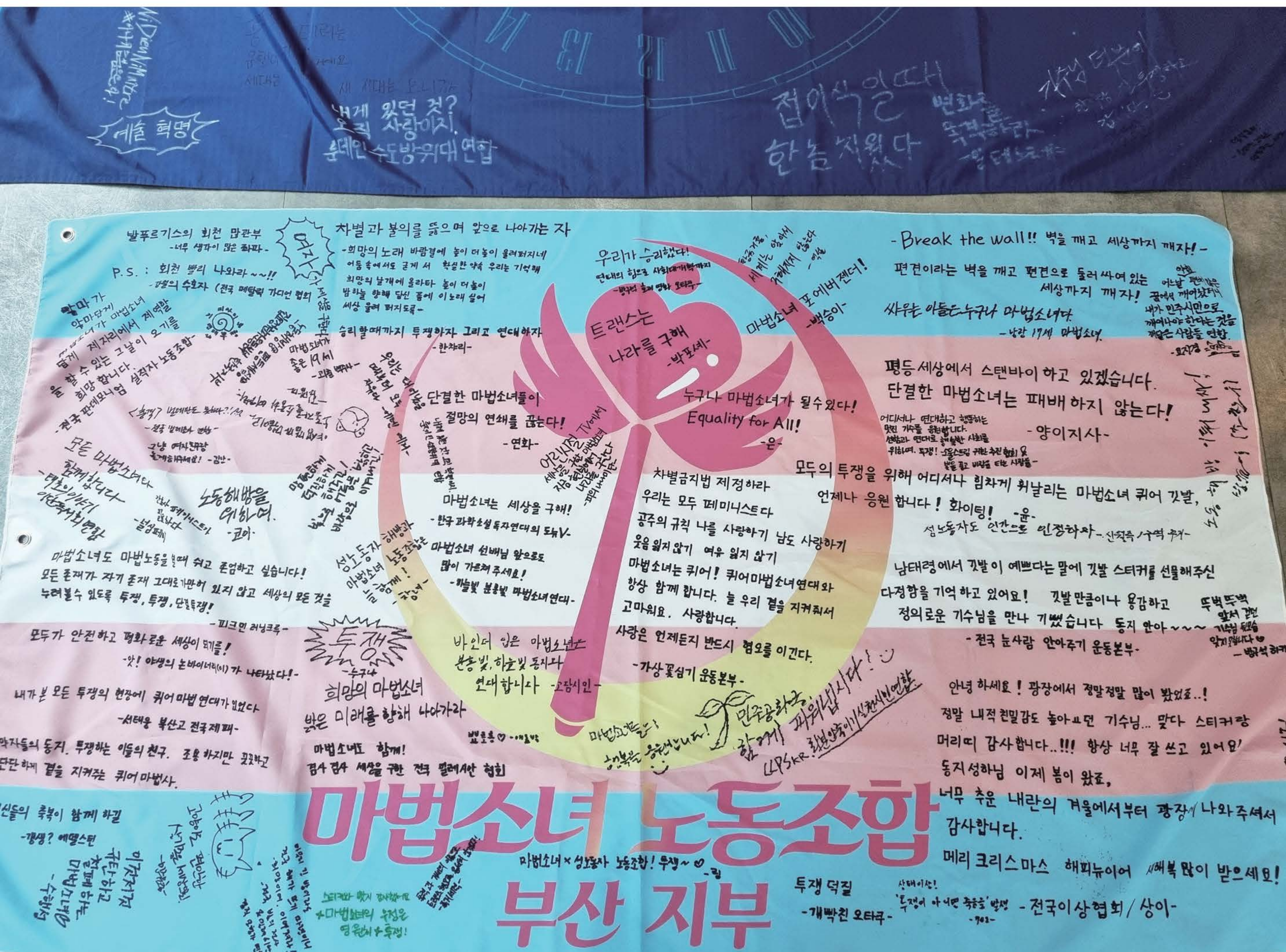
노민현 (40대 학부모)

“엄마 그럼 우리 5·18처럼 되는 거야?” 첫째는 바로 얼마 전 학교에서 계엄을 배웠고 그때 들었던 그 끔찍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는 건가 싶어 걱정이 컸습니다. 저와 함께 ‘소년이 온다’를 읽었던 터라 그 끔찍함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곧 계엄이 해지되기는 했지만, 그 두려움의 밤은 우리 아이에게나 저에게나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의 두려움이 해소되는 길은 광장에 함께 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이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 외치는 그 광장에 서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째에게 제안했고 흔쾌히 함께 갔습니다.

아이는 계엄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생긴 듯합니다. 중1이 된 아이는 5월에 광주로 역사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역사의 주인은 우리 같은 자각한 시민들이고, 시민들의 행동으로 역사는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웠길 바라봅니다.





이가영 (세월호 세대)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채, 가슴 아픈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불합리한 탄압이 가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가 계속되어선 안되기에,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광장에 나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꼭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광장에 나섰더니, 정말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를 끊어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권 장악을 꾀하는 내란 세력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실현시켜야 하며, 그날까지 나는 국민들과 함께 광장에 모여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강영진 (60대 금정구 주민)

저는 은퇴 후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차량 픽업과 배송을 하는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보고 생각한 것은 윤정부에서 행해졌던 혐오와 차별의 각자도생 사회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반칙을 부끄러움 없이 저지르는 국가의 지도층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으로 퇴행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반성 없는 집단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겨울, 주 1회 목요일은 지역 금정구에서 집회에 참석하였고, 토요일은 서면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2, 제3의 이런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주민의 자치 역량이 반영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원탁회의가 많아져야 합니다.



피린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퀴어)

저는 장애인이자, 성소수자입니다. 2022년에 사고로 뇌병변장애를 얻었습니다. 제가 선 광장은 탄핵광장만은 아니었습니다. 옵티칼 희망텐트 때도, 희망뚜벅이 때도, 옵티칼 희망버스 때도, 2차, 3차 남태령 때도, 거통고-옵티칼-세종호텔 고공승리텐트 때도, 민주동덕 집회 때도, 서면시장 수요집회와 투쟁문화제 때도, 이수기업 아침 선전전과 투쟁문화제 때도 제 깃발은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윤석열이 탄핵되었어도, 노동자 농민들과 여성, 성소수자들에게 여전히 세상은 계엄과 다름이 없어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지금이 5월 26일인데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지회의 박정혜 동지는 505일째, 세종호텔 지부의 고진수 동지는 103일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동지는 73일째 엄혹한 하늘 감옥에 갇혀있어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해 A학교 성폭력사안 공익제보를 하신 지혜복 선생님이 학교로부터 부당전보를 당하신지는 492일이나 되었고요. 서면시장번영회지회 김태경 지회장이 부당해고당하신지 1486일이 되었어요. 이수기업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은 238일이 되었구요. 또 미아리 집결지 성노동자 분들은 강제철거집행으로 잠옷바람으로 집에서 끌려져 나와 길거리로 쫓겨나셨구요. 이분들이 모두 고용승계되고, 원직복직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몸을 뉘일 수 있는 집이 있는 세상으로, 비정규직이 철폐된 세상, 노조법2, 3조가 개정된 세상으로, 그 어떤 노동자도 더 이상 고공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세상으로,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는 세상으로, 노동자가, 농민이, 여성과 장애인이, 성소수자가 생존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해요. 노동해방, 농민해방, 여성해방, 퀴어해방, 장애해방, 동물해방되는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12월 3일 계엄의 충격, 그 후 극도로 분열된 사회에 맞서 광장에서 터져 나온 수많은 목소리는 단지 과거의 외침이 아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말 속엔 이 시대가 직면한 위기와 그것을 넘어서는 길이 담겨 있다.

대선과 그 이후의 미래는 단지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 광장에서 시작된 변화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

65년 전 그해 봄의 외침을 기억하며!

제65주년 4·19혁명 희생자 추모 위령제 및 기념식



65년 전, 1960년 4월 19일. 억압에 맞서 자유와 정의를 외친 시민들과 학생들의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두려움보다 정의를 택했던 그 날의 용기는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고, 매년 4월이면 우리는 다시 그 봄을 기억한다.

2025년은 4·19혁명 65주년 되는 해로, 이를 기리기 위해 부산에서는 4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추모와 기념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4월 18일(금) 오후 2시, 민주공원 입구에 있는 4·19광장 내 4·19민주혁명희생자위령탑 앞 영령봉안소에서는 4·19혁명 희생자 추모 위령제가 열렸다. 광근수 4·19민주혁명회 부산광역시지부장과 회원들, 장기남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부산지부장과 회원들을 비롯해 이남일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동일 부산민주공원 관장, 서정모 부산광역시청 총무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위령제는 제문 낭독을 시작으로 헌주 및 재배, 추모사, 진혼무, 헌화까지 약 30분간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4·19 영령을 기렸다.



다음 날인 4월 19일(토)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겹벚꽃이 절정에 이른 봄날, 꽃구경을 하러 민주공원을 찾은 수 많은 시민들과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오가던 상춘객들도 발길을 멈춰 기념식에 함께했고, 65년 전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국민의례와 묵념, 헌화·분향, 4·19혁명 경과보고, 기념사, 추모 공연과 합창, 그리고 '4·19의 노래' 제창까지, 기념식은 우리가 지키고 이어가야 할 민주주의의 시작을 다시 돌아보는 자리였다.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의 정신이 수록되어 있다. 그 정신을 오늘에 되새기며,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자 한다. 🇰🇷



다시 만난 민주주의 '오월의 노래'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부산 기념문화제



5월 18일 오후 5시, 민주공원 큰방에서는 시민들의 따뜻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부산 기념문화제는 오월정신으로 다시 만난 민주주의를 노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행사는 개회 선언과 민중의례, 내빈 소개에 이어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행봉 이사장의 기념사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초청 공연은 긴 세월 민주주의를 향해 흘린 피와 눈물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다시 새기는 자리였다.

4월 4일부터 22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 시민 9개 팀은 '오월의 노래'를 주제로 각자의 기억과 목소리를 무대에 올렸다. 그 무대는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기억,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현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미래의 약속이었다.

연제구 어린이 합창단 '누리합창단'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문을 열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가야 한다는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자연과 사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곡을 만들고 노래하는 어쿠스틱 밴드 '노나밴드'는 '안부'로 관객의 마음을 다독였고, 음악가 부부 '배보성·온가영'은 자작곡 '너에게'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에 대한 다정한 약속을 노래했다.

민중가요를 현재의 삶 속에서 재해석하는 '노래하자 모디라'는 과거가 아닌, 지금도 피어오르는 진실이자 우리가 응답해야 할 살아 있는 노래 '오월의 노래1'을 불렀다. 부산민주청년회 노래패 '사람들' 출신 '김진아·김형구'는 '오월이야기'로 그날의 참상과 깊은 슬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역사성·장소성·사회문제를 함께 풀어내는 거리예술을 지향하는 프로젝트팀 '봄꽃'은 같은 이름의 무대로 일상과 거리에서 피어난 저항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30~50대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대전마을학교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그냥 좋아서, 동네밴드'는 노래 '시작'을 통해 삶을 향한 단단한 용기를 전했다.

창단 13년 차인 부산여성회 노래패 '용감한 언니들'은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불렀다. 밝으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로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유쾌하게 응원하고 있었다. 마지막 무대는 박종철 열사와 6월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며 창단된 '박종철 합창단(지휘자 이민환)'이 장식했다. 이



들은 김남주의 시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
아라」를 노래로 옮겨, 결코 서정으로 포장할 수 없는 오월의 진
실과 저항의 목소리를 힘 있게 전했다.

문화제는 모두가 함께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으로
마무리되었다. 세대를 넘고 세월을 지나 하나로 이어진 그 노
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오월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부
르는 모두의 마음을 담은 함성이었다.

기념사에서 이행봉 이사장은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부르는 오월의 노래가 훗날에도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의 목소
리로 남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의 노래는 단순한 공연
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고, 약속이었으며, 오월과 현재,
훗날을 잇는 응답이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모두 밝혀지지 않았고, 왜곡과 편향은 여
전히 이어지고 있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
고, 진상이 온전히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같은 비극을 반복
하지 않을 수 있다.

오월정신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의 이름이다. 



걱정마라 6월이다!

제38주년 6월민주항쟁 기념 부산시민한마당



올해는 6월민주항쟁 38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6월 7일 토요일, 송상현광장 다이내믹부산마당에서는 5월에 이어 '다시 만난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38주년 6월민주항쟁 기념 부산시민한마당'이 열렸다. 초여름 햇살이 찬란히 내리쬐는 주말 오후,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6월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만난 민주주의'를 반겼다.

시민한마당은 오후 2시에 시작됐다. 9개 단체가 참여한 다양한 민주주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광장은 활기찬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찼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나만의 민주주의 미니 손피켓 만들기' 체험 부스를 마련해, 최근 광장의 상징이 된 손피켓과 응원봉을 자유롭게 꾸며, 민주시민으로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부스를 준비했다. (사)부산어린이어깨동무는 '평화활동가 유형 테스트'를 통해 시민들이 각자의 활동가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문장을 직접 써보는 캘리그래피 부스를 열어 시민들의 손글씨로 메시지를 남기게 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기억의 힘, 민주주의를 잇다'를 주제로, 일제에 의해 자행된 강제동원의 역사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민주주의가 기억의 힘에서 비롯됨을 강조했다.

역사적 사건을 다룬 체험뿐 아니라, 보다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부스들도 눈길을 끌었다.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부마항쟁의 역사와 의미를 숨은그림찾기와 미션 게임으로 풀어냈고, 청년 단체 '청년, 오늘'은 민주주의 주제의 색칠놀이와 물총 퀴즈 게임을 통해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었다. 연제구여성회는 민주주의 붓글씨 쓰기 체험과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꾸미는 '민주주의의 벽'을 운영해 참여의 의미를 되새겼다. (사)부산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민주주의'를 주제로 에너지 주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고, (사)부산민예총은 시민들과 함께 기념식 주제 퍼포먼스를 장식할 '큰기'를 그리는 자리를 마련하며 문화예술과 민주주의를 잇는 장을 열었다.





오후 5시, 체험 부스가 마무리되고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행봉 이사장의 기념사와 부산광역시 교육청 김석준 교육감의 축사가 이어졌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축사를 조영태 행정자치국장이 대독했다.

이어 '걱정마라 6월이다!'를 주제로 한 (사)부산민예총의 기념공연이 펼쳐졌다. 동학농민혁명에서 부마민주항쟁, 5·18민중항쟁, 6월민주항쟁, 빛의혁명까지, 민중이 이룬 민주주의의 역사를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킨 공연이었다. 공연의 대미는 항쟁의 공간에서 민중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역할을 하는 '큰기놀이' 퍼포먼스로 장식되었다. 시민들이 함께 만든 '다시 만난 민주주의'라는 글귀가 적힌 큰기에는, 각자가 꿈꾸는 민주 세상의 염원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시민한마당의 마지막은 모두가 어우러진 대동놀이였다. 6월의 정신 아래 시민들은 세대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억을 나누고, 마음을 모으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광장의 기억,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숨결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는 오늘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가장 큰 힘이었다. 그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6월민주항쟁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1987년 6월의 연대가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곳은 바로 광장이었다. 이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6월의 정신으로 목소리를 모아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함께 외쳤던 그 순간들, 변화를 현실로 만든 광장의 힘은 지금도 우리 삶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숨결로 살아 있다.

6월의 밝고 찬란한 여름 햇살과 같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밝고, 더 찬란한 미래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

국가 폭력에 맞선 시민의 힘

- 대만 2·28사건과 5·18민주화운동

김선아 | 민주공원 교육문화팀장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위한 실천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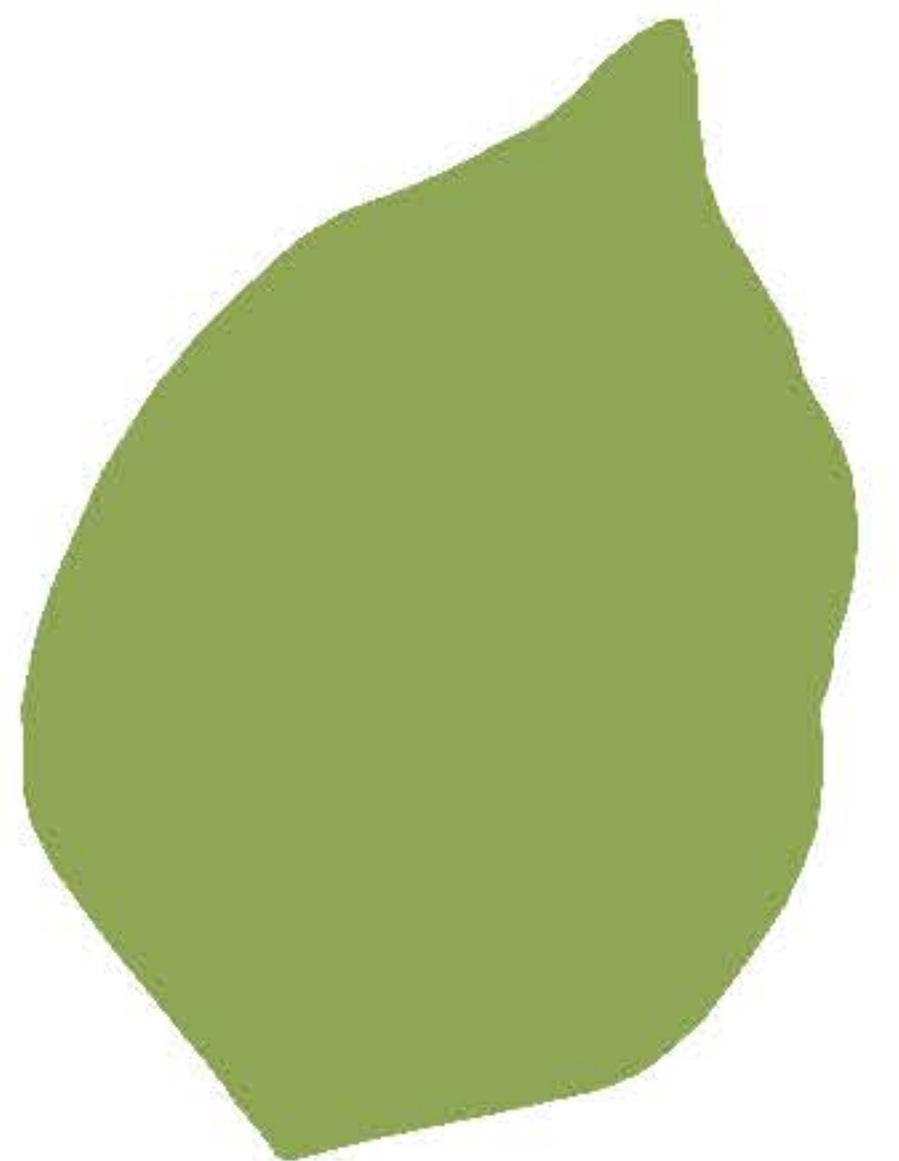
5월 13일(화)부터 6월 1일(일)까지 민주항쟁기념관 3층 잡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에서 기획전시 「국가 폭력에 맞선 시민의 힘-대만 2·28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1947년 대만에서 국민당 정부의 부당한 통치에 항거한 시민들의 외침인 ‘2·28사건’과, 1980년 한국에서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5·18민주화운동’을 함께 조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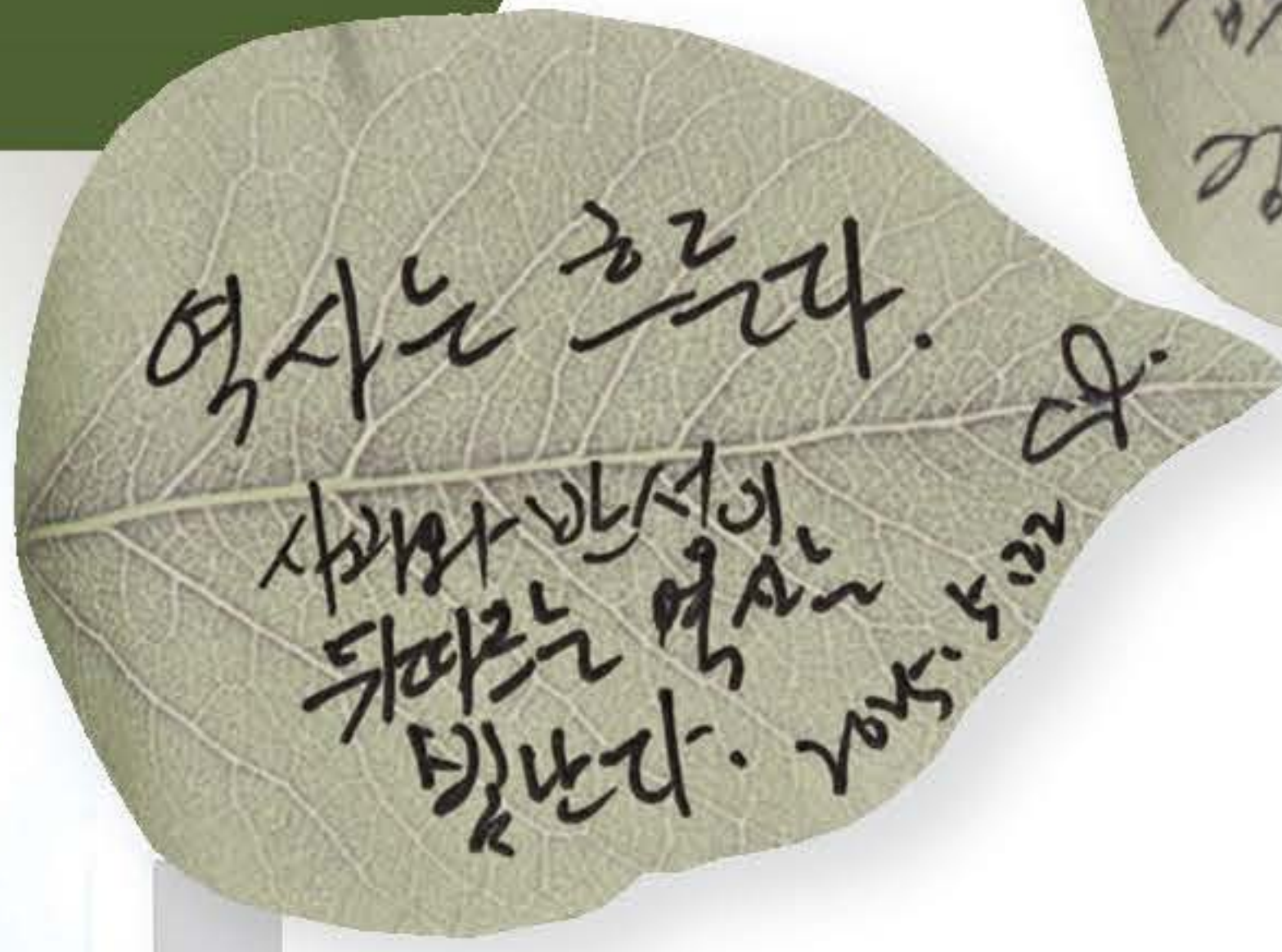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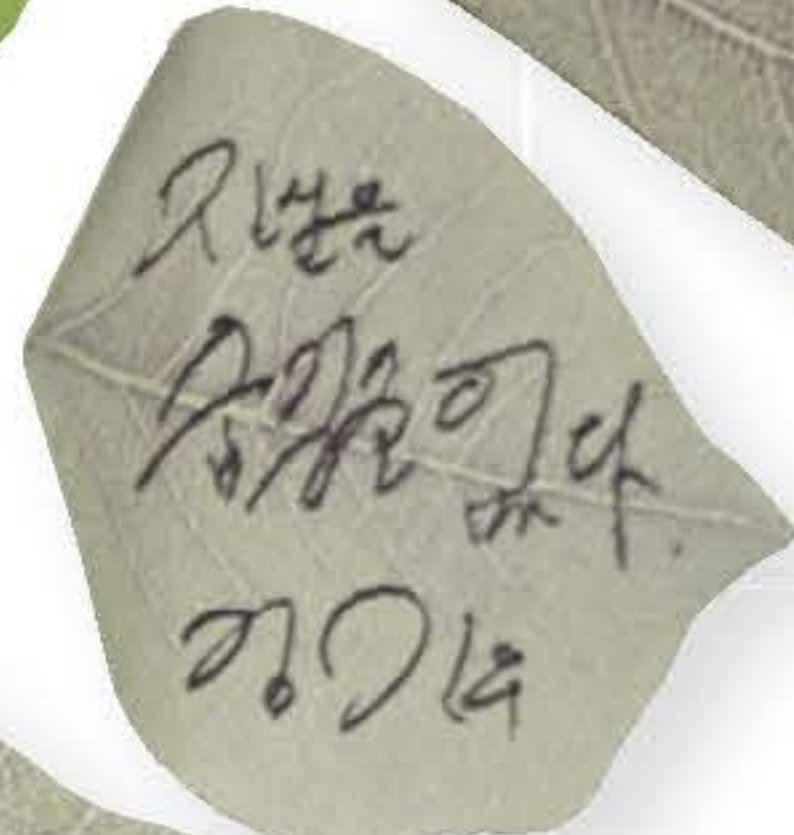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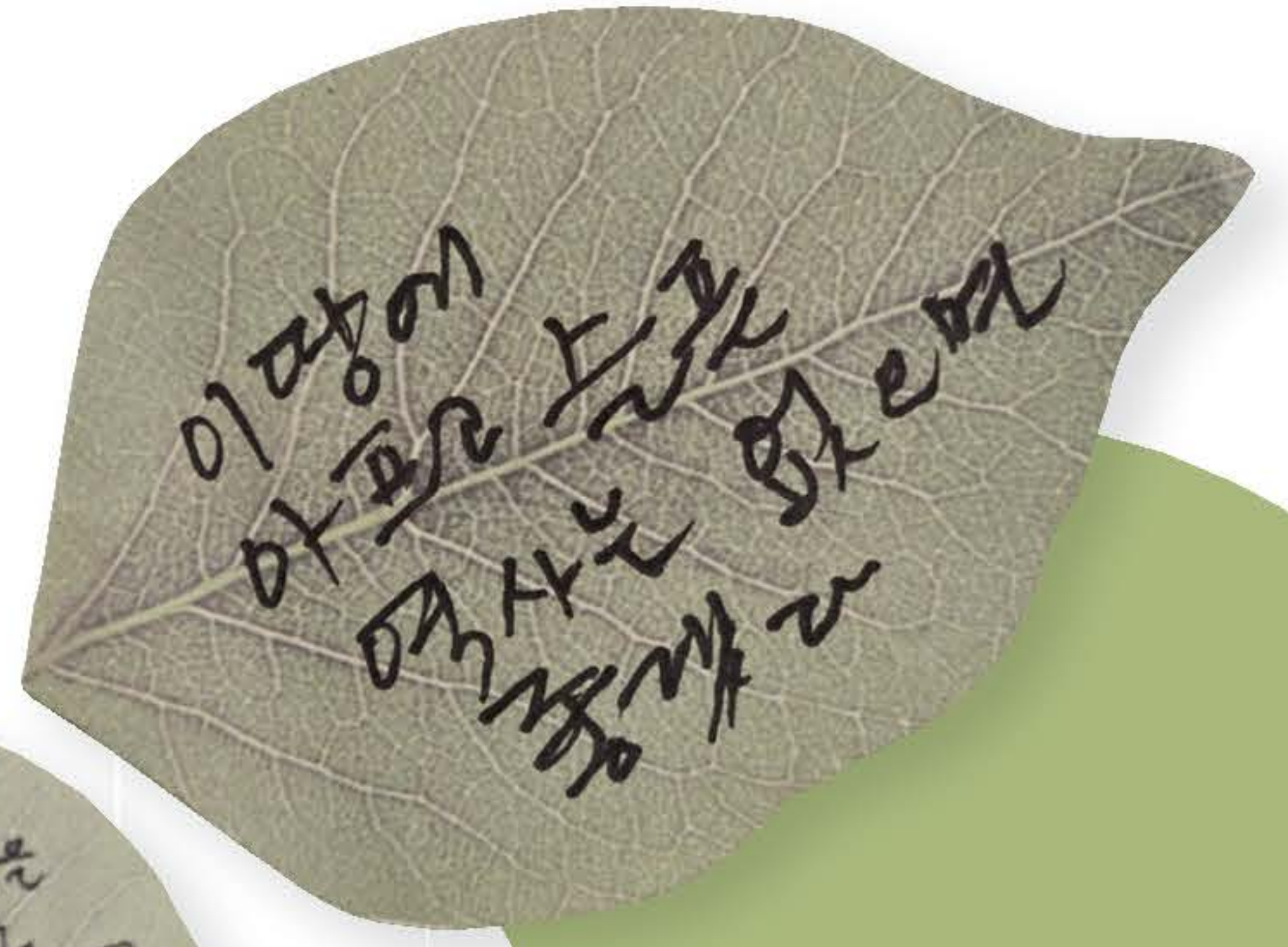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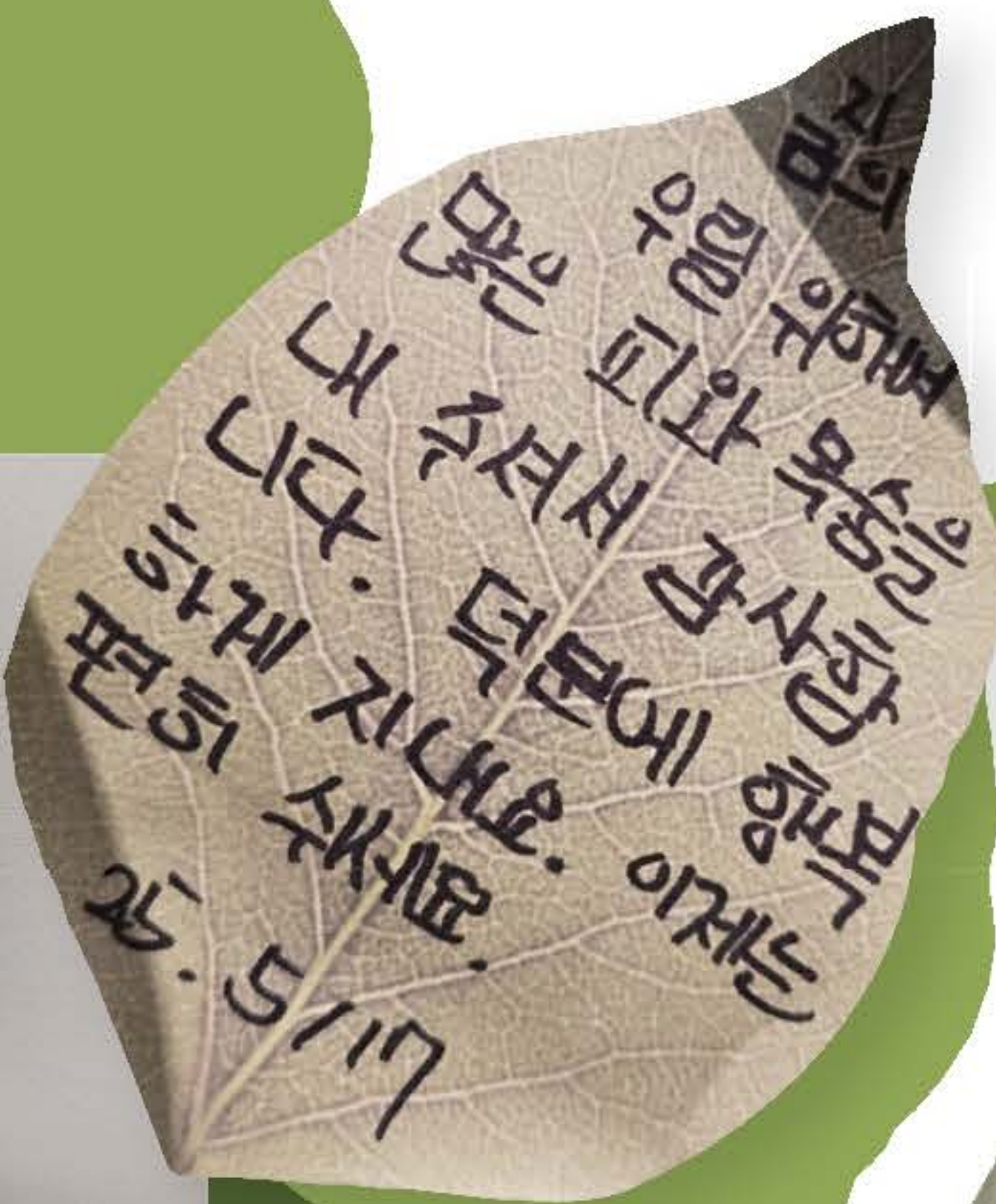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과 학살의 역사 속에서 용기 있게 맞섰던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고자 기획된 전시입니다.

전시의 첫 번째 섹션은 ‘대만 역사의 전환점, 2·28사건’입니다. 1947년 발생한 대만 2·28사건을 중심으로 대만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간행물은 물론 대만 2·28기념관 내부 전시를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존을 마련해, 억압에 맞서 싸운 대만 시민들의 모습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5·18기념재단이 주최한 대만 2·28기념기금회 교류 협력전 〈역사의 메아리, 기억의 부름〉 대형 현수막을 함께 전시해 국경을 넘는 기억의 연대를 시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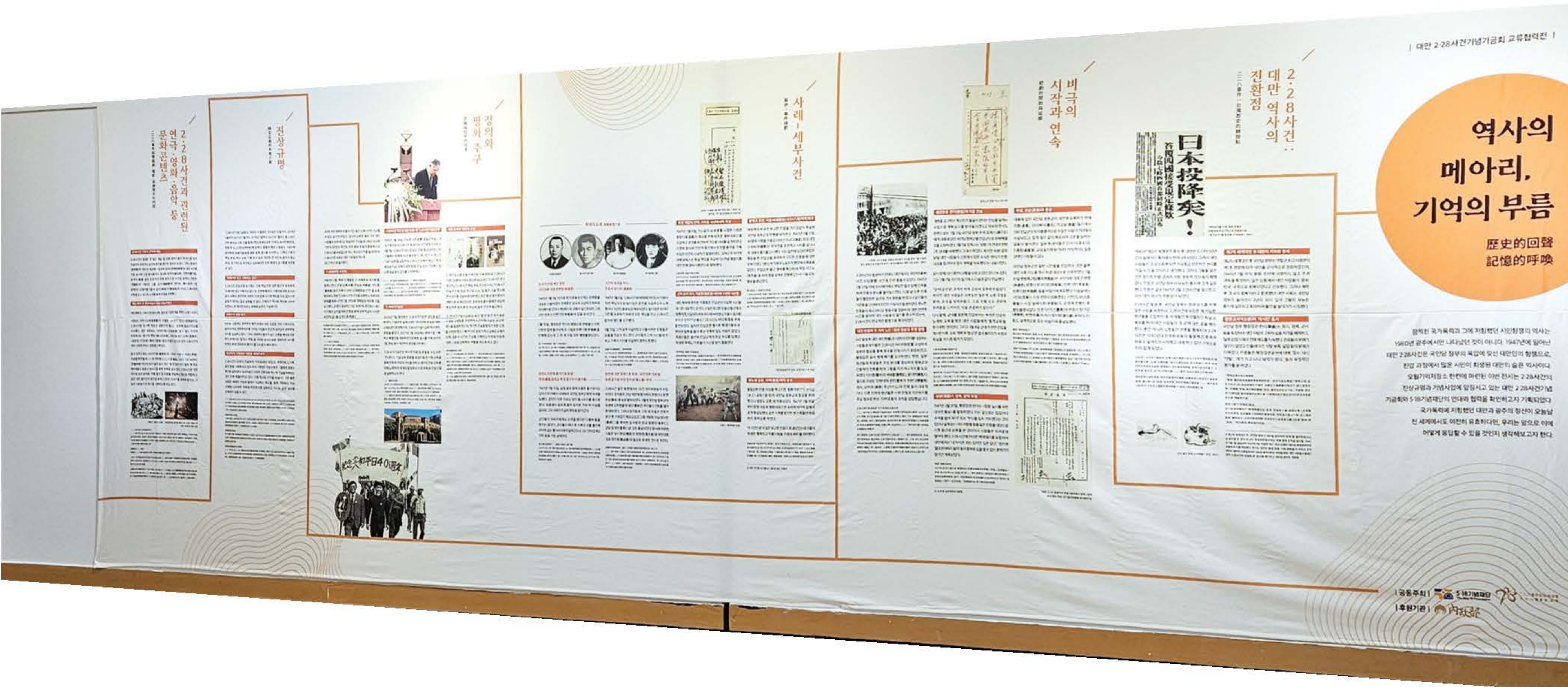
다음 섹션 ‘국가가 삼킨 목소리 - 진실을 묻은 충구’에서는 5·18기념재단에서 제작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용 전시 자료를 통해, 45주년을 맞이한 1980년 광주와 시민들의 용기,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더불어 관련 영상 시청 구역과 교육자료, 그림책을 함께 전시해 오월정신을 다양한 연령층이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그리는 마음’ 공간에서는 푸르른 나무 두 그루에 관람객이 소감을 적은 나뭇잎을 직접 부착하는 참여형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만의 2·28사건과 광주의 오월정신을 함께 기억하며, 두 사건이 공통으로 지향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단순한 나열이 아닌, 함께 나아가는 길을 찾기 위한 전시
이번 전시는 두 사건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대만의 2·28과 광주 의 5·18은, 국가 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이라는 공통된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전시를 관람한 모든 분들에게, 이번 전시가 그 정신을 되 새기고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와 정의를 위한 길에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민주주의기록관 돌아보기

이동문 | 민주공원 학술사료팀장

민주공원 민주주의기록관이 하반기 개관합니다.
2019년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소장하고 있던
민주주의 역사기록물(사료)이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되면서 시작된
기록관 건립 논의가 이제 화룡점정,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공간 구성

민주주의기록관은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지나며 급등한 공사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공간이 많아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보존서고와 수장고도 절반 가까이 줄었고, 지상 3층도 출입을 위한 통로 기능만 겨우 남길 수밖에 없었지만, 시민 서비스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사료전시실과 체험교육장은 최초 계획보다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살렸습니다. 주 출입구와 주차장이 있는 지상 3층은 계단과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지하 1층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상 1층과 지하 1층은 외부 조경 시설과 연결되어 건물 안과 밖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휠체어로 어느 층이든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주차장 지붕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친환경 에너지 건물을 구현하였습니다.

사료전시실

지상 2층에 마련한 사료전시실은 ‘위대한 행진’, ‘뜨거웠던 부산’, ‘6월의 민주열사’, ‘민주 아카이브’, ‘주제 영상실’로 구분하여,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 부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4월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중항쟁, 6월민주항쟁 당시 취재일지와 시민의 일기 등을 통해 부산의 목소리를 담은 ‘위대한 행진’, 6월민주항쟁의 구심점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부산가톨릭센터 농성의 열기를 담은 ‘뜨거웠던 부산’은 우리 사업회가 소장한 사료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6월의 민주열사’에서는 박종철, 이한열, 황보영국, 이태춘 열사의 숭고한 민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민주 아카이브’는 민주공원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과 연동하여 구술 영상, 디지털 아카이브를 검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제 영상실’은 부산의 상징 동백꽃을 동작 감지 센서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로 구현하였습니다.

체험교육장

지상 2층 사료전시실과 마주 보고 있는 체험교육장은 민중미술 그리기를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고, 태블릿 피씨와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한 번에 24명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태극기 그리기 대회와 같은 우리 사업회의 성과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우수 도서 등도 비치하여 민주주의 체험교육장으로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수장고와 수장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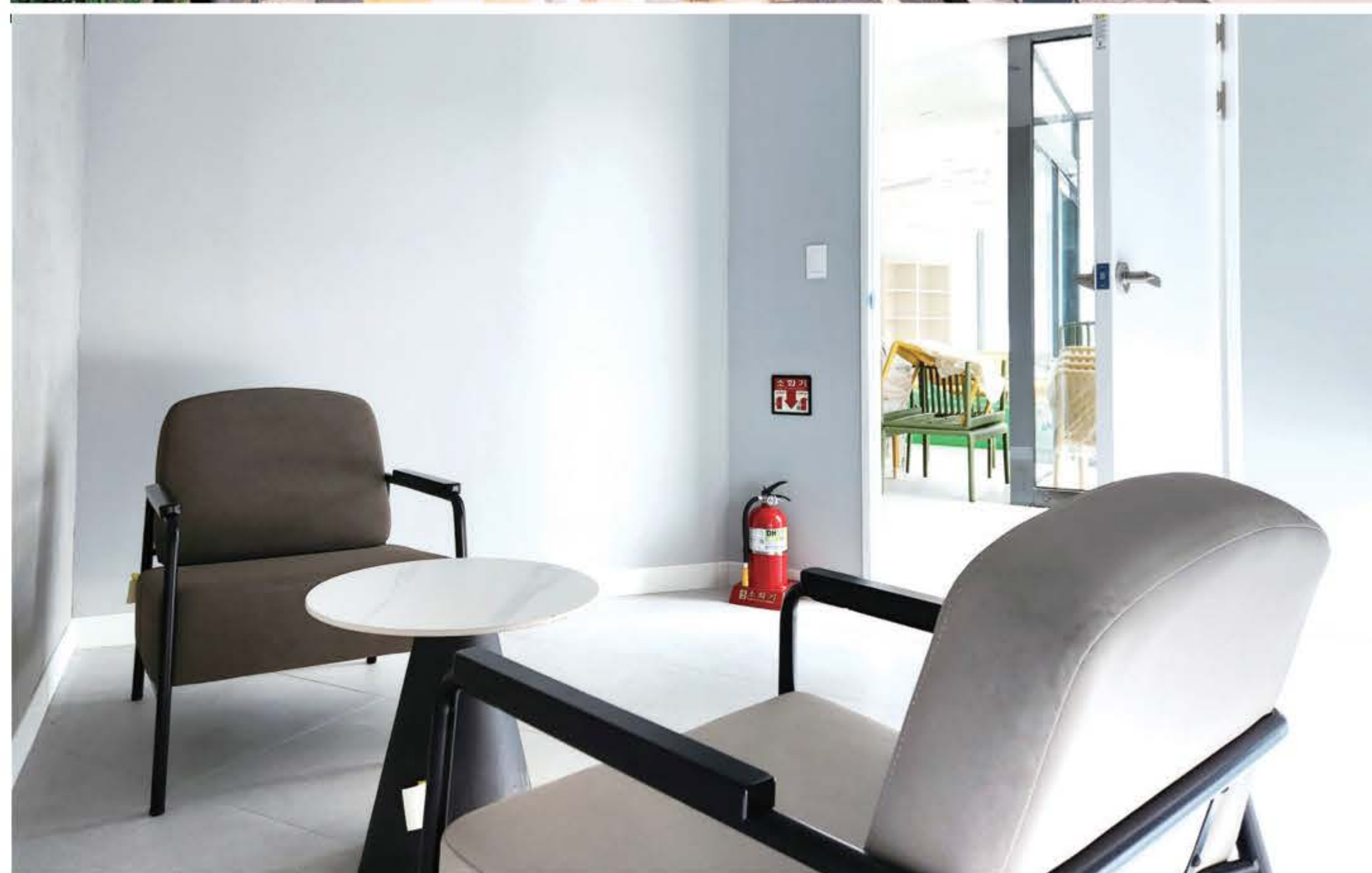
우리 사업회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 작품 약 1,000점을 쾌적한 환경 속에 보존하는 동시에 관람객이 충분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수장과 전시의 복합 기능을 갖춘 시설, ‘보이는 수장고’는 소장 작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처럼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중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우리 사업회의 특징점을 잘 살려 전시는 물론, 민주주의 교육과 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장 작품 중에는 민주공원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중요한 작품이지만 아직 전시에 활용되지 못했던 다양한 작품들도 많습니다. 작품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감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록열람실, 정보검색실과 메이커 스페이스

민주주의기록관의 설립 목적은 무엇보다도 사료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관리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업회는 이미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갖추어 다양한 사료를 디지털 이미지로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디지털화 정도는 낮은 수준이고, 직접 방문해서 실물 사료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판 자료 등과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사료는 엄격히 구분하여 공개합니다. 이런 사료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시민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기록관에서 직접 실물 사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기록열람실입니다. 1층 사무실 맞은편에 위치한 기록열람실은 메이커 스페이스와 정보검색실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열린 제작실이라고도 번역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주로 구술 영상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정보검색실은 PC를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외 휴게 테라스

민주주의기록관의 특별한 단점이자 장점은 경사가 심한 부지 위에 건립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점이라면 무엇보다도 조경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건물 주변의 조경 공간에는 다양한 식물을 심어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면적이 다소 좁은 편입니





다. 장점은 특별한 전망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덕운동장을 비롯해 서구 일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중앙공원 충혼탑, 구덕산, 엄광산 등이 병풍처럼 둘러싼 도심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눈맛을 경험하고 싶다면 민주주의기록관을 꼭 찾아오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기록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민주공원은 지역 민주주의 역사 기록물을 새롭게 평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부산이 만들어 왔던 다양한 부문운동, 시민사회단체의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안정적으로 보존·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입니다. 민주주의기록관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민주공원은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계승하고, 민주주의 역사 기록물을 보존·연구·교육하는 필수 기반을 갖춘, 명실공히 민주주의의 전당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

1987. 6

1987년 6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부산의 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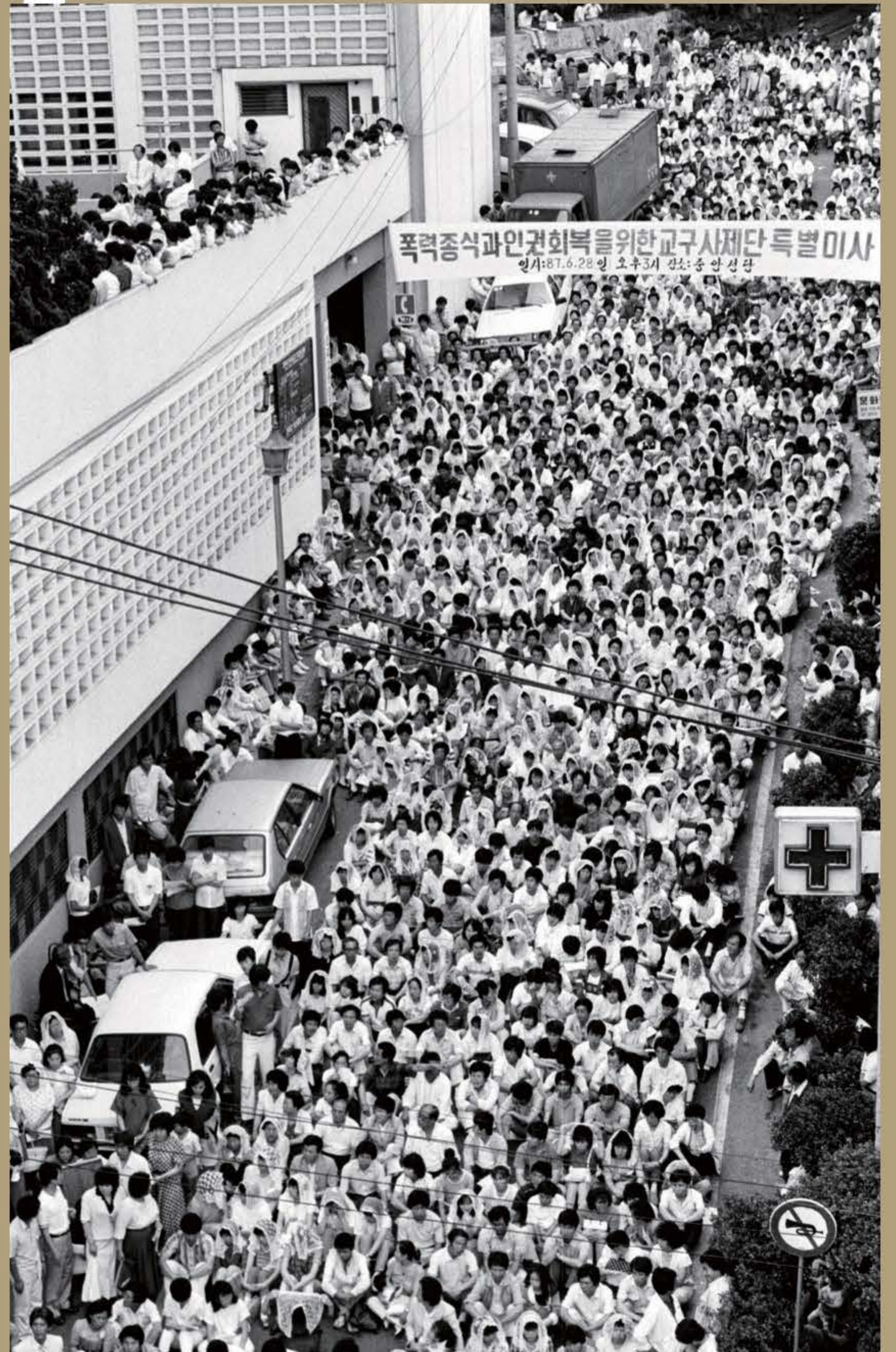
박지원 | 민주공원 학술사료팀 기록물관리

‘기억에서 기록으로’에서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소장한 부산지역 민주화 운동 관련 사료를 소개합니다. 소개된 사료는 하반기 개관 예정인 민주주의기록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987년 6월, 부산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호헌조치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6월민주항쟁 과정에서, 부산은 기폭제 역할을 해냈다. 전국적으로 시위의 열기가 주춤했던 6월 17~18일에도 부산은 가톨릭센터 농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며 다시금 전국적인 항쟁의 불씨를 지폈다.

그 가운데 6월 26일의 평화대행진은 항쟁 기간 중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인 날이었다. 부산에서는 시민, 학생, 종교인을 비롯해 다양한 이들이 참여했다. 가톨릭부산교구 사제단은 중구 대청동 중앙성당에서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위한 특별미사’를 마친 후, 수녀와 신도들과 함께 가톨릭센터까지 침묵 평화대행진을 벌였다. 이날 행진에는 사제단 70여 명을 선두로 수녀 약 5천 명을 포함한 1만 6천여 명이 함께했다.

6월항쟁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하나로 모여 폭발한 순간이었다. 그 거센 물결 앞에서, 결국 노태우는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작가미상, 1987. 6. 26. 중구 대청동 평화대행진 모습



작가미상, 1987. 6. 26. 동구 범일동 보림극장 앞에서 시민 1천여 명이 문현로타리 방향으로 진출 중인 모습



작가미상, 1987. 6. 26. 동구 범일동에서 독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모습

No. _____

6.26 평화대행진 상황 - 황 명숙 -

9:30 - 서면시위대 1000 여명과 시청쪽 시위대 500 여명이 부산역으로 이동. 역 앞에서 5000 여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대열을 정비하고 시청쪽으로 행진

9:45 - 영주동 입구에서 경찰 150여명과 대치. 이때 시위대는 1만여명으로 불어남.

9:50 - 경찰의 최루탄 난사로 다수는 부산역 방면으로 후퇴하고 몇몇은 영주터널 방면으로 후퇴.

10:00 - 흩어진 시위대는 영주터널 앞에서 400여명 대열을 정비하고 카톨릭 센터로 행함. 시위대는 명진교개를 따라 「직선 개헌」 「독재 타도」의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행진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와 시위대에 호응.

10:25 - 카톨릭 센터에 도착한 시위대는 스크린을 짜고 극제시장 도로로 뚫어가며 시위.

10:30 - 제일극장 앞에서 경찰의 최루탄 난사로 흩어진 시위대는 3갈래로 나뉘어져 일부는 보수 복개천을 따라 행진 (100 여명), 나머지는 부평동 쪽에서 대열을 정비 (200 여명) 루터리에서 합류.

10:50 - 시위대는 아카데미 극장을 거쳐 부산극장가 진출 (350 여명)

부산대신문 (乙)

No. _____

11:00 - 350 여명의 시위대는 시청으로 가기 위해 중앙로 일부를 잠겨 남포파출소 앞까지 행진.

11:18 - 시위대는 시청으로 전향함은 무의미하고 손해만 따를 뿐이라 판단 좀 더 많은 시민을 모으기 위해 북명극장앞으로 행진

11:30 - 부산극장에 도착한 시위대는 경찰이 철러트자 연좌시위. 굳이 최루탄이 터지자 골목으로 피신. 몇몇 골목에서 미리 파란 대거해 있던 수복 경찰에 구타당함.

11:45 - 흩어진 시위대는 한중동 공복을 미화당 복에서 집결 (150 명)

내일 10시 각 학교로 등교하길 촉구

부산대신문 (乙)

No. 1

1987년 6월 26일 금요일

보림극장 앞 상황

5:55 '독재 정권 퇴진하라' 플래카드

'대통령에서 동장까지 내 주으로 뽑자'

국회의원: 박찬종, 김경각, 서석재

800 여명 학생 (시위대)

6:00 2500 여명 서면 방면으로 행진

6:10 범백로 방면에서 전경 (중환) 최루탄 쏘아 대치

6:25 서면으로 이동.

7:45. (서면) 범백로 거역 (300 여명)

로터리로 진입 시도 구위 500 여명.

태극기: 난대, 누대생 중산. < 다면방탄 벽산.

8:25 가계장 부산원정 범백로 3000 여명 진시강 쪽으로 행진 시도. 전경들에게 밀려 40 여명 자위 시장 쪽으로 흩어짐. 전경 30 여명 포위 함

8:35. 8시 5분 가량 500 여명 비폭 외쳐다 사라진 어디인가 터지자 전경들에게서도 던지며 서면으로 도망

8:50 가계시장 → O.B. 800 여명

부산대신문 (乙)

No. 2

P:15. 시험을 접결지로 1차 해산

9:40 6년 1만 5천명 부산역 → 시청 행진 시작

플래카드: 부산시민 단결하여 군부 독재 끝장내자

10:00 영주 R에서 전경들에게 밀려 부산역으로 재집결.

10:10. 전경들에게 포위된 (시위대) 호강, 역쪽으로 부산해산 < 연행자 다수있을 것으로 보임.

부산대신문 (乙)

황용석 취재기자 등, 1987. 6. 26. 6월항쟁 취재보고서 평화대행진 상황

초·중등 교육의 현장에 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가

위민제 | 부산 역사교사

2025년 1월 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 하얀 헬멧을 쓴 20~30대로 보이는 청년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인 ‘반공청년단’으로, 기자회견에서 ‘백골단*’을 예하 조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수사를 거부하고 있었고 체포영장 집행 문제로 경찰에서 수도권의 형사를 소집하고 있던 때였다. 부정적 여론으로 인하여 이들 세력은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는 다음에 이어질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2025년 1월 19일 오전 3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 부지방법원을 습격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며 구속을 결정한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살

* 백골단은 1980~199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체포한 사복 경찰관들을 부르는 말이다.

▼ 한국사 수업 중 헌법재판소 판결 시청하고 있는 모습



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고, 법원 건물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기물을 부숴다.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되어서야 이들의 난동을 멈출 수 있었다. 결국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서부지법 폭동이 5·18과 같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궤변을 적은 글도 등장했다.

타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법을 무시하며 폭력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행위, 타인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 등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까? 자라나는 학생 중 10년, 20년 뒤에 앞의 두 사례와 같은 민주주의의 파괴자가 또다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

“

① 선고 결과

- 11시 22분, 윤석열 파면 (8:0 만장일치)

② 선고의 이유

- 탄핵소추 의결 부적합으로 불수X
- 일시부재의 위반X
- 계엄 해제 but 탄핵사유 이미 발생
- 탄핵 소추한 의결 적법 → 탄핵소추 남용X
- 계엄 선포 당시 7명사.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만 진행
- 2025년도 예산안 - 당시 상황 영향X
- 부정선거 의혹 계엄 주장 → 정당화X, 타당X (권력유권해적)
- 계엄법 선포 목적X, 상체적 안전 위반
- 구체적 내용 설명X
- 정당 활동 / 활동 위반 / 영장주의 위반
- 민주주의 부정 / 전체 혼란 야기

③ 사람들의 반응

찬성쪽) 헌호/태극기/ 반대) 침묵
대통령 병환인) 안타까움, 파면 이유 - 불가피한 선택
탄핵소추) 내란사태 무기 이겨낸 국민들
단장

④ 향후 급하락

④ 앞으로 한국사회의 예상

- 국민들은 이 사건의 과정 속에서 겉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에, 재통권선거를 할 때 이에 대해 유심히 볼 것이며 과정이 결말을 맺게 되었다 할지라도 찬반의 입장 내에서 갈등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선고판결 결과.

파면.

② 선고의 이유

- 헌법위반.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
- 계엄을 선포할 상체적 이유X

③ 사람들의 반응

~~<내대> 대통령의 불가피한 선택이 정당화~~
<내대> 21세기 법치주의 국가에서 앓은수X.
<찬성> 당연한 결과이다.

④ 앞으로 한국사회의 예상

새로운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으로 새롭게 살아갈 것 같다.

⑤ 나의 생각

여러 비리에 드러나서 있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던 적이 있으므로 재판관님들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에 이 사건의 민주주의의 증명이라 표현이 될 것 같다.

⑤ 나의 생각/소감

- 매 순간 역사의 순간에 있다고 느끼는데, 이번의 사건 선고 결과의 전개 과정을 보며 이는 결코 한 페이지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의 순간을 그대로 나타낼 것이 아니라 유사하게 나타내므로 앞으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이 끝나자, 환호하면서 박수하는 학생, 긴장이 풀리는지 한숨을 내쉬며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 조용히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학생, 놀란 표정으로 얼어붙은 학생, 걱정스러운 표정의 학생 등 반응은 다양했다. 학생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활동지를 통해 살펴본 학생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대체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은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특정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유행하는 문화에 심취하거나 가짜뉴스에 현혹되어 극단적 주장을 하는 학생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 불합리함을 주장하거나 불복하는 의견은 보이지 않았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 요지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폭력과 억압에 저항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었음을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쓰여있어 민주주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위협하거나 무력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되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다.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학교 폭력, 교육활동 침해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 주체 간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보다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심해졌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관계의 회복과 치유보다 쉽게 관계의 단절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 한두 명의 노력만으로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주적 가치와 민주적 삶의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 단순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재 마주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

민주시민은 길러지는 것이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 민주적 삶의 태도를 갖춘 시민이 길러질 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모여 저항한 시민과 군용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선 용감한 청년처럼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

‘백골단’,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vs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어떤 사람을 길러낼 것인가? 

빵과 서커스

제33회 민주시민상 수상자
가수 우창수 · 김은희 부부와 개똥이어린이예술단



이보람 | 민주공원 시민홍보팀 홍보 · 기록

민주주의는 언제나 완성되지 않은 약속이었다. 때론 거리에서, 때론 법정에서, 그리고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흔들렸다. 우리는 그때마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하며 다시 일어섰다. 가수 우창수 · 김은희 부부는 그 길 위에서 오래도록 동지들과 함께 노래해 왔다. 노동의 현장에서, 투쟁의 자리에서, 그리고 마을 아이들과 함께한 작은 무대 위에서. 이들에게 노래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기억이고 연대이며 삶을 지키는 다짐이다.

2024년, 제33회 민주시민상 개인 부문을 수상한 우창수 씨는 수상 소감에서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라”는 故백기완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위해 연대를 멈추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 다짐은 지금도 아이들과의 노래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2009년 두 사람은 부산에서 ‘개똥이어린이예술단’을 시작했고, 2014년부터는 경남 창원 우포늪 인근에서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그려간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어른들이 잊은 질문을 다시 꺼내주기도 한다.

개똥이어린이예술단은 초등학생 6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서린(6학년), 윤슬(6학년), 소은(5학년), 다인(4학년), 윤하(4학년), 다운(1학년)이가 함께하고 있다. 부부는 “카니발 차량에 딱 맞게 탈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에서요”라며 웃었지만, 단원을 6명으로 정한 이유는 그보다 더 크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다. 이렇게 만난 6명의 개똥이들은 매주 즐겁게 연대를 노래한다.

5월의 어느 날, 짙레꽃이 흐드러지게 핀 우포늪 인근 개똥이 마을책방에서 가수 우창수 · 김은희 부부와 개똥이어린이예술단을 만났다.

개똥이어린이예술단(이하 ‘개똥이’)을 소개해 주세요.

소은 : 일주일에 한 번씩 책방에 모여서 노래 1시간만 하고 놀러 나가요. 공연도 해요.

다운 : 개똥이는 재미있는 곳이에요. 노래할 때 기분이 좋아요.

공연할 때 기분이 어때요? 어떤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소은 : 공연을 하면, 사회생활도 알 수 있고, 같이 노는 것도 재미있어요. 맨 처음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대구에 있는 ‘도나의 집’에서 했어요. 엄마의 날 공연이었는데, 떨려서 계속 바닥만 보고 노래했어

요. 지금은 앞에 보고 자신감 있게 하고 있어요.

윤하 : 무대에 올라가면 가끔은 큰 무대에서 긴장되기도 하는데 좋은 주제로 무대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공연을 마치고 나면 엄청 뿌듯해요. 첫 무대였던 미안마 공연*이 기억에 남아요. 가족들이 다 보고 있어서 너무 떨렸어요. 끝나고 가족들이 꽃다발 주면서 큰 실수 안 했으니 잘했다고 했어요.

다인 : 아리랑 열두 고개(이태석 신부 작사·작곡)를 불렀던 공연(이태석 사랑나눔 음악회)이요. 무대가 크고 사람이 많아서 기억에 남아요. 무대에 올라갈 때 떨리는데, 떨려도 재미있어요.

서린 : 저는 첫 공연이요. 3학년 때 처음으로 공연했어요. 첫 공연이라 제일 기억에 남아요. 엄청 많이 떨렸는데, 하면서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개똥이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요?

윤하 : ‘작가가 되고 싶다(하연 글, 우창수 곡)’가 제일 좋아요. ‘책이란 하나의 세계요’라는 가사가 좋아요. 저는 작가가 꿈이에요. 작가가 되면, 실제로 될 수 없는 일을 제 상상력으로 쓰고 싶어요. 제 마음대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쓰고 싶어요.



* 개똥이어린이예술단은 7개 도시를 순회하며 미안마 난민·어린이를 위한 모금 공연을 했다. 공연을 통해 5,000여만 원을 모아 미안마 난민과 어린이 비상식량인 쿠키를 만들 수 있도록 미안마와 국경을 맞댄 태국 매솟으로 전달했다.



다운 : ‘다닥다닥 붙은 집’이요. 노래가 신나고, 아이들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윤슬 : 저도 ‘다닥다닥 붙은 집’이요. 제 마음도 그렇고, 어린이들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가사 중에서) 하기 싫다고 외치는 것도 좋아요.

서린 : ‘우포늪에 맨발로 오세요’가 좋아요. 뭔가 느낌이 부드럽고, 우포늪이 잘 담겨서 마음에 들어요.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 노래한 적 있어요?

윤하 : 세월호 공연 때요.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소은 : 싸움 없고 모두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인 : 평화로운 세상이요. 그리고 즐거운 세상이요.

윤슬 : 기후정의행진 같은 걸 안 해도 되는 세상요. 그리고 편견 없는 세상이요.

서린 : 기후 위기 없고 깨끗하고 쾌적한 세상? 우리가 그런 공연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뀔 거예요.

다운 : 행복한 세상이요!

다운이는 언제 행복해요?

다운(올해 학교에 입학한 1학년) : 학교 갈 때 행복해요.

소은(5학년) : 학교 안 갈 때 행복한데(웃음).

그럼 행복한 학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은 : 한 달에 한 번씩 수업 다 빼고 운동장에서 피구 같은 놀이를 하며 하루 종일 놀면 행복할 거 같아요. (이렇게 소박한 아이의 바람을 어른들은 왜 못 들어주는 걸까!)

어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까요?

윤하 : 원하는 걸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안 가는 거(웃음)?

다인 : 수학하기 싫다고 하면 수학 안 하게 해주는 거요.

소은 : 싸우지 말자?

윤슬 : 아이들의 생각을 읽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서린 : 저도 아이들 말을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언젠가 가서 노래 부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소은 : 제주도요! 제주도에 가서 바다에 관한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요. 바다가 점점 더러워지고 있는데,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다인 : 저도 제주도요.

윤하 : 저는 다른 나라요. 태국?

다운 : 중국이요. 중국 노래 배워 보고 싶어요.

개똥이들과 같이 만들어서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서린 : 지금 있는 노래가 좋아서 딱히 만들고 싶은 노래는 없어요. 그래도 현재 개똥이들만의 방식으로 노래 부르고 싶어요. 따뜻한 노래랑 즐거운 노래를 섞어가면서요.

윤슬 : 현재 개똥이들이 쓴 글에 노래를 붙여서 부르고 싶어요. 부르면서도 재미있고, 들으면서도 재미있는 노래요.



윤슬의 답을 마지막으로, 개똥이들과의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윤슬이가 바라는 것처럼, 부르면서도 재미있고 들으면서도 재미있는 노래를 부르며 제주도도 가고, 원하는 곳 어디서든 개똥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 노래하길 바란다.

개똥이들과의 시간을 지나, 부부와 마주 앉았다. 지난해 민주시민상 시상식장에서 짧은 인사만 나눈 뒤로 품어온 질문을 건넸다.

두 분은 오랫동안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노래해 오셨죠. 수많은 현장 중에서 특히 마음 깊이 남아 있는 곳이 있을까요?

우창수(우) :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 농성 현장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2006년 그분들이 처음으로 노조를 만들고 싸움을 시작했어요. 80여 일 동안 농성했고, 저도 거의 절반 이상은 부산에서 그곳으로 오가며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이 승리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지역 연대를 잘 이끌어내어 승리했습니다. 몇 년 후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는, 농성장 옆에 상추 텃밭이 만들어져 있었고, 문화제 끝나면 상추를 뜯어가라고 하더군요. 그분들은 그렇게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을 오히려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기억에 남는 현장으로는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투쟁이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농성장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먹입니다. 오랫동안 투쟁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찾아온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어요. 박창수 열사부터 해서 20대 때부터 만난 곳곳, 기억에 남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김은희(김) : 세월호 참사 후 어른들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너무 슬펐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때 세월호와 관련된 현장에는 저희 둘이 공연을 다녔어요. 개똥이들이 그걸 알고는 본인들도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같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요. 그리고 우창수씨가 개똥이들에게 제안했어요. 어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른들을 한 번 안아드리면 어떨까요고요. 아이들이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죠. 처음 어른들을 안아드렸을 때, 어른들 대부분이 펄펄 울었어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연습하면서 저도 울고, 아이들도 많이 울었어요.

현장에서는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

우 : 가는 현장에 맞는 노래들을 불러요. 노래 중 <빵과 서커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는 ‘로마는 빵과 서커스(Bread and circuses)로 유지된다’* 라는 말로 당시 사회를 비판했죠. 2002년 월드컵이 열릴 때 붉은 악마의 함성 뒤로 끌려가는 노동자를 보았고, 생존을 철거당하는 노점상을 봤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예요. 한편으로는 빵을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몰입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월드컵을 겪으면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잔치보다는, 광장의 직접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동학의 사발통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축제를 벌이자고 곡에서 이야기해요.

요즘 ‘빵과 서커스’를 가장 부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우 : 지금 많이 불러요. 선거 국면 때도 많이 부르고, 박근혜 탄핵 광장에서도 많이 불렀어요. 부마항쟁도 5·18민중항쟁도 정치인보다 민중들이 일구어낸 역사예요. 광장의 힘으로 한 거죠. 요즘 시국과도 맞죠. 지인이 “형 어떻게 (예전에)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 노래가 또 이렇게 불리는구나 싶었어요. 내 생각이 아직 유효하구나 싶었어요. 얼마 전 서면시장변영회 투쟁 현장에 갔는데, 집회 시작 전에 빵과 서커스를 든다고 하더라고요. 시대의 시대가 지났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문제, 대의 민주주의냐 직접 민주주의냐 하는 문제는 여전해요. 민중의 투쟁으로 일어난 민주주의가 찬탈당하거나 왜곡당하는 걸 많이 봤어요. 이번 광장을 거치면서도 좀 더 직접 민주주의, 광장의 민중들의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선거에서도 늘 통제되고 하잖아요.

작년 민주시민상 수상 소감에서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라’는 백기완 선생님의 말을 인용하셨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예술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우 : 무대에 올라가는 것은 가장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나는 어떤 면에서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나와 관객은 “내 생각은 이렇소, 당신은 어떻소”하고 서로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노랄 합니다. 백기완 선생의 말씀은 절실히 하라는 거고, 그러

* 서커스(Circus)는 로마 황제가 정치적인 불만 세력이 될 농후한 프롤레타리아트에 눈요깃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대형 원형 경기장의 이름이다. 아울러 로마의 시민은 매일 빵도 배급받았다. 로마제정의 우민정책을 ‘빵과 서커스’라고 비꼰 사람이 바로 당대의 풍자시인 유베날리스다.

면 고통이 보이고, 사람들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예술이 사회적 역할로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일명 타당히 가져야 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름 없이 저항 예술을 해왔던 사람도 있고, 자본주의에서 상업적으로 팔리는 예술을 하는 사람도 있죠. 세상에 여전히 사회적 역할로서 예술가의 몫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죠. 어떠한 세상이 와도 저항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얼마 전 유명 가수가 탄핵 국면에서 발언했다고 공연이 취소됐다더라고요. 그래도 그 가수는 여전히 노래할 것이라고 했죠. 아직도 이런 세상이에요. 박정희 때도 그랬지요. 이건 함께 극복해야 해요.

김 : 예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창수라는 사람은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노래들을 만들었고 현장에서 필요했던, 필요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반성이 있으면서 아이들을 보게 됐죠. 미래이기도 한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의 아이들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아주 비관적으로 살아간다거나 희망없이 간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곡을 붙여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최근 발매한 음반 ‘노래로 자란 텃밭’은 기후 위기같이 우리 인간이 행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생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래로 퍼트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올라서서 이 사회를 정말 개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만들어내고 부를 것인가가 남아 있죠. 그 길에 지금 가고 있어요.

언젠가 개똥이들과 꼭 함께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요?

우 : 이미 지금 부르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지금 또 한 번 민주주의를 다시 만나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노래로 삶을 지키고, 아이들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들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그 길의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



“

제34회 민주시민상
후보자 추천을
8월 12일까지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 : 051-790-7477



제65주년 4·19혁명 기념 함께 걷고 배우는 민주공원 스토리투어

유한별 | 민주공원 시민홍보팀 시민·회원사업

지난 봄호 ‘회원과 함께’ 코너에서 신입회원들과 함께 걸었던 부산민주역사길 현장탐방기를 기억하시나요? 민주공원의 프로그램을 처음 접한 신입회원들과 ‘자주민주길’ 코스를 따라 걸은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무심코 지나던 남포동 골목길을 민주공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걸으며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는 신입회원들의 반짝이는 소감이 가슴에 남습니다.

이번 여름호에서는 회원 가족들과 함께한 민주공원의 또 다른 인기 교육 프로그램인 ‘민주공원 스토리투어’ 탐방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 12일 토요일 오후, 비 예보가 있던 주말임에도 많은 회원과 시민들이 4·19광장에 모였습니다. 4·19혁명 65주년을 맞아 민주길 해설사의 전문 해설을 들으며 민주공원과 4·19광장을 걸어보는 ‘민주공원 스토리투어’와 ‘4·19혁명이 꿈꾼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갈 민주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김선미 박사의 특강에 함께했습니다.

민주공원 장승터 초입에서는 민주평화여장군과 민족자주대장군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장군님들의 표정이 오늘따라 와하하 - 크게 웃음을 터트리는 얼굴처럼 보이네요. 장승터에는 구석구석 둘러볼 곳이 많습니다. 장승 원편에 있는 ‘민주공원’ 글자가 새겨진 표지석을 살펴보고, 잔디밭 안쪽의 김형률 추모비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김형률 선생의 추모비에 적힌 ‘삶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유심히 바라보며 해설을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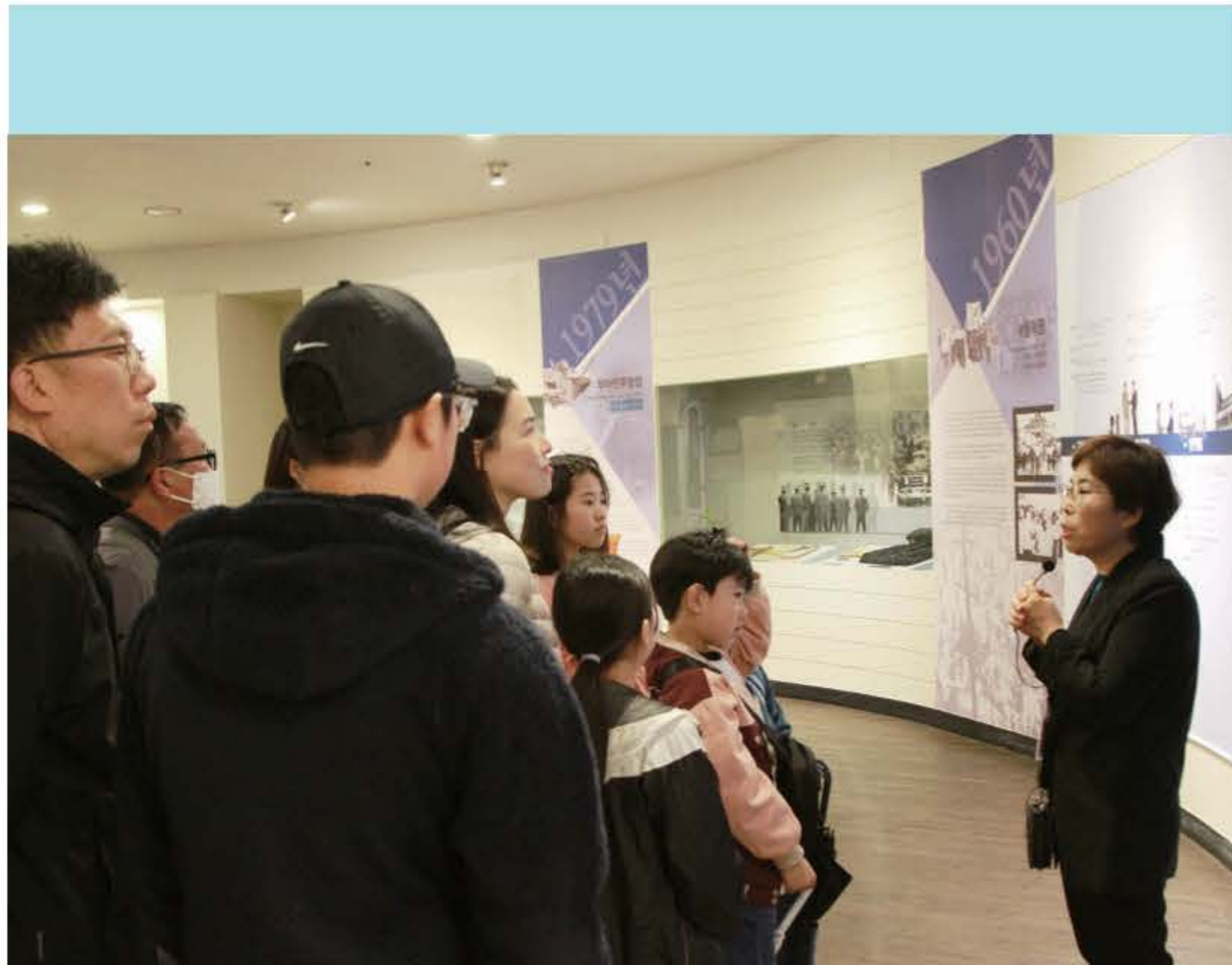
장승터를 나와 계단길을 올랐습니다. 줄지어 선 열주등을 따라 시선을 돌리니 커다란 햇불 형태의 조형물이 보입니다. 하나하나의 촛불이 모여 커다란 민주의 햇불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냇기림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냇기림마당 한편에는 부산의 6월항쟁 열사를 기리기 위해 세운 추모의 벽 ‘늘빛드레’가 있습니다. 박종철,

이태춘, 황보영국 열사의 이름을 읊으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민주항쟁기념관 건물 안을 둘러볼 차례입니다. 달팽이길을 따라 빙글빙글 올라가다 잠시 멈추어 서서, 기념관 중앙에 위치한 조형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 열주등 계단에서 보았던 그 커다란 햇불이 여기에 있네요! “마치 아이스크림 같다!” 어린이 참가자의 말에 모두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모반듯한 직선이 아닌, 울퉁불퉁 투박한 나선형의 달팽이길은 재치 있고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달팽이길을 걸어 늘펼쳐보임방(상설전시실)으로 들어갑니다. 앞마당의 민중미술 파사드(facade) 속 작품도 하나하나 뜯어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 적힌 헌법 제1조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상세한 설명에 회원들의 경험담까지 곁들여 더욱 생생하게 전시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혹여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 어린이 참가자들을 바라봤는데, 그 눈빛엔 지루함이라곤 없이 초롱초롱한 호기심만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살아 있는 민주주의 교육의 현장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탁 트인 부산의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바람마당(옥상)과 하반기 개관을 앞둔 민주주의기록관까지 둘러보고 나니 비가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탐방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빗방울이 우리를 잠시 기다려준 것만 같았습니다. 빗소리를 뒤로하고 작은방(소극장)에 도란도란 둘러앉아 김선미 박사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두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재미있고 몰입도 높은 강연이었습니다. 부산의 4·19혁명 이야기에서 출발해,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지금, 부마를 만나는 방법

제7기 부마기자단 발대식 및 워크숍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부마기자단의 발대식이 지난 4월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지리산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워크숍(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근무도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의 형식을 빌려 재단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기자단 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 지리산 일대 탐방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부마를 배우고 알리기 위해 참여한 6명의 부마기자단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장례지원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서는 항쟁의 주역인 관련자의 명예와 품격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장례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대상은 관련자 증서를 받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그 부모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마민주항쟁 누리집 또는 관련자 사업 담당(051-715-1783)으로 문의 바랍니다.

<헤리티지 오브 부마> 영상콘텐츠 연재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항쟁의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는 유형 자산을 소개하는 <헤리티지 오브 부마>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및 재단 SNS를 통해서 주 1회 연재합니다. 항쟁 당시 부산대 학생의 일기장을 비롯해 김택용 기자의 취재원고처럼 학술적 가치가 있는 각종 기록물은 물론 부산과 마산 지역의 항쟁 거점에 세워진 각종 표석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이템 하나당 40여초 가량의 짧은 영상인 만큼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부마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6회 부마항쟁문학상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현재적 자산으로 기억하기 위해 제정된 부마항쟁문학상의 여섯 번째 공모가 시작됩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문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공모는 시, 소설을 비롯해 아동/청소년문학, 기록문학, 신인문학으로 구분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8월 한 달 동안 이어지며 오늘의 우리 현실 속에서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형상화한 작품에 대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누리집 또는 탐방프로그램 담당(055-265-1018)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5 창원 민주주의 역사현장탐방 ▶

창원지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인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근현대 지역사 학습 및 주요 현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4시간 안팎의 코스를 버스를 타고 전문강사의 해설과 함께 하게 됩니다. 2025 창원 민주주의 역사현장탐방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누리집 또는 탐방프로그램 담당(070-4245-8536)으로 문의 바랍니다.

만나고 기억하다

2025 창원 민주주의 역사현장 탐방

우리지역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인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화운동 등 근현대 지역사를 학습하고 주요 현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간
2025년 6월 2주 ~ 11월 / 예산 소진시 종료

신청대상
경상남도내 학생 및 교사, 학부모 20명 내외 단체

탐방내용
창원지역 민주화운동 주요 역사현장 탐방(3·15의거,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화운동)

소요시간
기본코스 4시간 내외

참가특전
전문강사 해설, 버스, 식사 및 간식, 워크북, 기념품 제공, 여행자보험 가입

신청방법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누리집 프로그램 신청 → 구글 신청폼 작성, 제출

신청확인 및 문의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교육사업 담당 070-4245-8536

신청서 바로가기

(사)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경상남도교육청

부마길 현장탐방_부산 ▶

‘부마길 현장탐방_부산’은 해설을 들으며 부마민주항쟁 역사 현장을 도보로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산대와 남포동 코스로 각 코스가 2시간 내외로 운영됩니다. 회차별 10명 이상 운영되는 부마길 현장탐방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누리집 또는 탐방프로그램 담당(051-717-178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부마길 현장탐방

탐방 신청 2025년 10월까지 선착순 마감

신청대상 개인 또는 단체

신청인원 회차별 10명 이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무료)

탐방내용 부마민주항쟁 역사 현장 투어

소요시간 2시간 내외 / 시간 협의 가능

문의 051-715-1785

1탐방 | 부·산·대 코스

부산대 구정문 → 부마민주항쟁 발원지 표석 → 부산대 부마민주항쟁 표석

→ 넉넉한 터 → 10·16 부마민주항쟁탑

2탐방 | 남·포·동 코스

남포동 5번 출구 → BIFF 광장 → 광복동 부마민주항쟁 표석

→ 옛 부산양서협동조합 자리 → 보수동책방골목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 부마길 탐방은 기상예보에 따라 우선시는 탐방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민중미술 2025〉

섹션1. 민중미술가열전 ⑧ 송주웅

4월 8일(화)부터 4월 30일(수)까지 민주공원 잡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에서 민중미술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민중미술가열전' 송주웅 작가 특별전 '우리 동네 사람들' 전시가 있었습니다. 송주웅 작가는 부산 안창마을 출신으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울산 지역 민중미술 현장을 일군 1세대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회화 작품 37점이 전시되었습니다.



2025 민주공원 예술놀이터

‘공원노닐기&헤드폰을 써보세요’

4월 11일(금) 2025 민주공원 예술놀이터 '공원노닐기&헤드폰을 써보세요' 야외공연이 있었습니다. 아카펠라 그룹 '오직목소리'를 초청하여 100여 명의 봄맞이 상춘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민족자주의 등불 故 청간 배다지 의장 1주기 추모식 및 유고집 출판기념회



4월 11일(금) 故 청간 배다지 의장 1주기 추모식 및 유고집 출판기념회가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1부는 1주기 추모식, 2부는 유고집 출판기념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순서로 고(故) 산수 이종률 선생으로부터 이어진 고(故) 배다지 의장의 사상에 대한 짧은 강좌가 진행되어 그의 사상과 투쟁에 대해 좀 더 뜻깊게 회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25 어린이날 민주공원 놀이터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일) 민주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행사에 3,500여 명의 시민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날 민주공원에 다녀간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길 바랍니다.



제3회 청소년민주주의상상한마당 행사 설명회

5월 10일(토) 오후 2시 민주공원 작은방(소극장)에서 '제3회 청소년 민주주의 상상한마당' 행사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상상한마당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13개 청소년 동아리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본행사는 8월 30일(토) 진행되며,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주체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소통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참석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입니다. 2019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정부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행봉 이사장, 민주공원 이동일 관장은 전북 정읍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열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혁명 당시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를 꿈꾸며 선포한 폐정개혁안의 요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물음을 던져 줍니다. 우리는 그 물음에 응답하며, 더 나은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방패, 헌법이야기' 강연 개최

5월 20일(화) 오후 4시 민주공원 작은방(소극장)에서 곽한영 부산대학교 교수의 '민주주의의 방패, 헌법이야기' 강연이 있었습니다. 직원 교육으로 준비된 강연이었지만,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참여 신청을 받아 함께했습니다. 이번 강연의 핵심은 '법의 힘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부터 비롯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공원에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특별 강연을 기획해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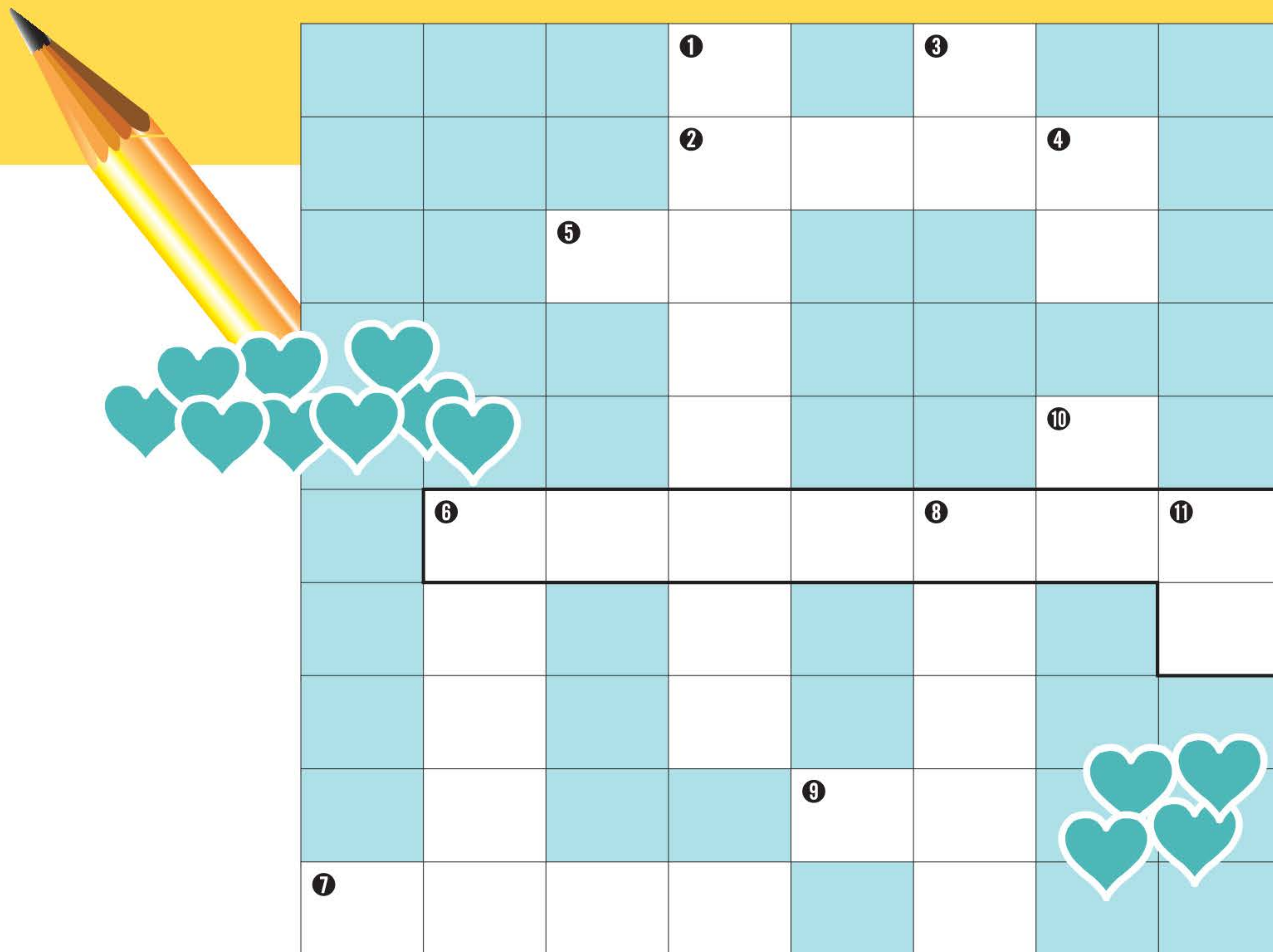


마루누리 바로가기

※ 더 많은 소식과 일정 확인은 민주공원 뉴스레터 '마루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식지를 읽으면 정답을 알 수 있는 십자말풀이

이번 여름호 소식지를 꼼꼼히 읽었다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십자말풀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가로 세로 퀴즈를 모두 채운 뒤 사진을 찍어, 여름호를 읽은 소감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보내주세요!
정성껏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5명)



카카오톡 공식채널로
민주공원 소식지에 대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소식지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카카오톡 공식채널

<가로>

- ②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민주항쟁기념관
잡은펼쳐보임방에서 열린 기획전시 제목은?
'국가 폭력에 맞선 OOOO'
- ⑤ 1947년 OO에서 국민당 정부의 부당한 통치에 맞서 일어난
시민들의 외침, 'OO 2·28 사건' (나라 이름을 넣어주세요)
- ⑥ 5만 6천여 건의 민주주의 역사 자료가 보관된 공간,
OOOOOOOO
- ⑦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과 학살은
왜곡 없는 철저한 OOOOO이 필요합니다.
- ⑨ 올해부터 새로 소식지를 맡은 담당자 이름은
OO입니다. 모두 OO 있는 하루 되세요^^

<세로>

- ①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부산 기념문화제와
제38주년 6월민주항쟁 부산 시민한마당을 관통하는 슬로건은?
- ③ 대만 2·28 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기획전시는
민주주의와 OO를 위한 길에 함께 나아가길 바라며 열렸습니다.
- ④ 오늘 하루도 OO세요♥
- ⑥ 가수 우창수씨는 제33회 OOOOO 수상자입니다.
제34회 OOOOO 후보 추천을 8월 12일까지 받습니다.
- ⑧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기록관에서 직접
실물 사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⑩ 4·19혁명의 정신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OO되어 있습니다.
- ⑪ 올해 개관하는 민주공원 민주주의기록관에 많은 OO바랍니다♥

당신이 민주주의입니다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주세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민주시민교육,
대중문화예술, 기획전시, 체험활동 사업에 쓰입니다.
후원회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 정기 후원 : 월 10,000원 이상 정액 납부
- 일시 후원 : 기본 회원 추가 납부 및
단체, 기관, 법인, 기업 일시불 납부

가입방법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
(www.ohminju.or.kr)
- 전화 가입 (051-750-3807)
- 큐알 코드 간편 가입 →



후원 혜택



행사, 교육활동
우선 알림과 혜택



회원 참여 활동
(체험프로그램 등)



공연, 전시 관람
무료 초대 및 특별 할인



소식지 무료 발송
(연 4회)



기관 기념품(굿즈) 증정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빛의 광장에서 모인 우리의 기록

쭙고 길었던 계엄의 밤,
부산 서면 빛의 광장을 밝힌
바로 그 시위템!
시민들이 기증한
민주주의 사료를 소개합니다.



개성도공주연합 깃발과 공주 요술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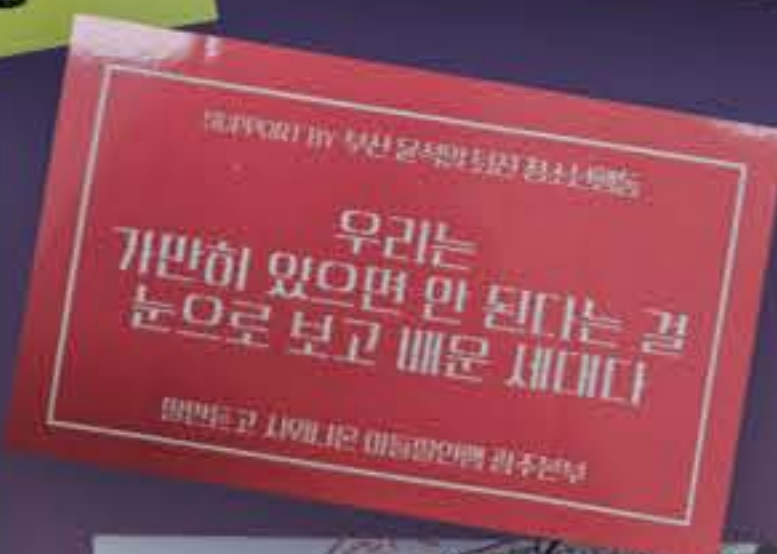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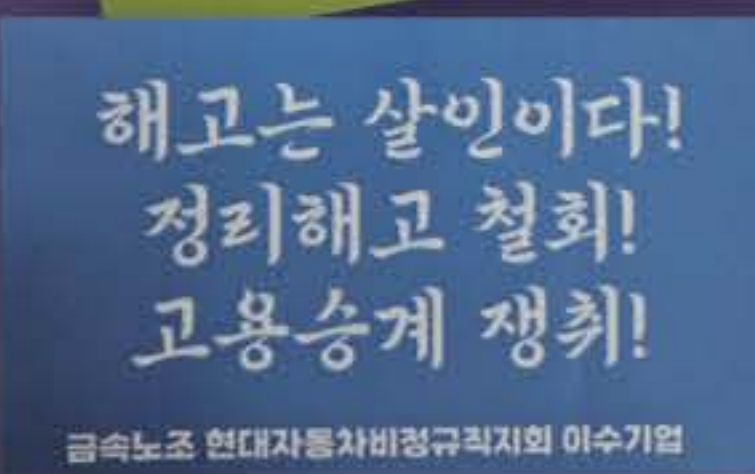
절대구속
응원봉



문어빵연구회 깃발



부산시민대회 손피켓 모음



민주주의 깃발 일러스트 배지



탄핵 피켓트 배지

재치있는 문구의 스티커 모음



이런 것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 기록을 모읍니다!

2025년 하반기

민주공원 부속건물 민주주의기록관을 개관합니다.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역사 관련 기록물을
수집 · 보존 · 관리 ·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민주주의 거점 기록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 바랍니다.

민주공원은 민주화 관련 문서, 사진, 소품, 민중미술작품 등
5만 6천여 건의 사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기록관에는 기존 사료와 함께
시민의 다양한 민주주의 기록을 기증받아
보존 · 관리 · 활용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기록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료 기증 절차 안내

1. 기증 신청

- 전화 : 051-750-3803
- 전자우편 : lisophy@demopark.or.kr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카카오톡 채널

2. 기증 희망 사료 조사 및 평가

-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사료 확인(사료 수량 · 내용 · 상태)
- 사료의 가치에 대한 평가, 수집 범위 설정

3. 사료 수집 일정 및 활용 협의

- 기증 사료 수집 일정 협의
- 기증 후 사료의 공개 범위와
전시 · 연구 등의 활용 방안 협의

4. 사료의 수집

- 담당자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사료 수집
- 기증확인서 발급 및 기증자 혜택 제공





민주항쟁기념관 48901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T. 051-790-7400
민주주의기록관 49214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193번길 161 T. 051-750-3800